"순위선정 부당 관여" vs "적법한 행정 절차"

광주 민간공원 특혜 의혹 첫 재판부터 기싸움 팽팽

피고인측 혐의 부인…수사기록 접근 제한 등 불만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비리의혹 관련 재판이 첫 공판부터 검찰과 피고인측의 기싸움이 팽팽하게 이어져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변호인측은 재판에서 검찰이 밝힌 피고인의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검찰의 수사기록 열람·등사 등의 제한으로 "피고인이 최소한의 방어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검찰의 수사 방식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11일 광주지법 404호 법정에서 형사4단독 박남준 부장판사 심리로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정삼 전 광주시 환경생태국장(현 광산부구청장)의 첫 공판이 열렸다.

이 전 국장은 지난해 민간공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평가표를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 유출하고, 상급자들과 함께 최종 순위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이 전 국장이 민간공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를 발표하기도 전에 평가표를 광주시의원 등에게 유출한 혐의가 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검찰은 이 전 국장이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 윤영렬 감사위원장 등과 공모해 2지구 1순위였던 금호산업의 유사사업 실적 가점을 2.5점에서 2점을 낮춰 0.5점으로 감점한 반면, 2순위였던 호반건설에는 오히려 불리한 사항이 누락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1순위였던 금호는 재평가에서 총 5.5점이 감정된 82.8점을 받아 2순위로 밀렸고, 2순위였던 호반건설은 1점이 감점된 88.5점을 받아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로 됐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또 1지구 1순위였던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도 제안서에 지적사항이 많다는 이유로 1순위 지위를 자진 반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2순위 ㈜한양이 우선협상대상자가 되도록 했다는 게 검찰의 공소 내용이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이 전 국장의 행위는 최초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기 위한 적법한 행정조치의 일부였다며 검찰이 제시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 측은 오히려 "최초 평가됐던 2지구 유사사업 실적 평가를 보면 비슷한 조건임에도 한양은 0.5점, 금호는 만점에 해당하는 2.5점이 책정돼 있다"면서 "검찰측에 이러한 부분의 잘못 여부를 공소 사실에 넣어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며 검찰수사에 강한 불신을 나타냈다.

변호인 측은 또 "광주도시공사와 관련해서도 감정평가서를 내지 않은 업체는 5점이 감점됐으나, 감정평가서 없이 학술보고서만 제출한 도시공사는 감점받지 않는 등 최초 평가부터 문제가 있었다"며 "이 전 국장은 이 같은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한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이 전 국장이 시의원 등에게 유출했다는 자료와 관련해서도 "공문서를 해당 상임위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공무상 비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날 변호인 측은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 전 국장의 변호인 측은 "검찰이 전체 수사기록 열람·복사를 허용하지 않아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재판부에 수사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하는 한편 추가로 구속 수감 중인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했다.

재판장은 원만한 재판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제한 조치의 해소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검찰 측의 협조를 당부했으며, 검찰은 "공범 관계인 피의자들의 수사가 진행중인 만큼 증거 인멸 등 우려가 있지만 신속하게 허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 전 국장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8일 오전 10시 1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영산강 수생태계 전국 하천 중 최악

환경부 5대강 하천 분석

어류·서식환경 등 최하위

영산강의 수생태계가 전국 하천 중 가장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환경부에 따르면 2016~2018년 3년 간 전국 5대강 하천의 수생태계 분석한 결과 영산강은 ▲어류 ▲저서동물 ▲부착돌말 ▲서식·수변환경 4개 분야에서 좋음 등급을 받은 비율이 가장 낮았다.

환경부는 수생생물 분야와 하천환경 분야의 현황을 조사한 뒤 항목별로 매우 좋음(A)부터 매우 나쁨(E)까지 5등급으로 분류해 생태계 건강성을 살펴봤다.

분석결과 영산강 하천 중 좋은(A) 등급 이상 지점을 각 분야별로 분석하면, 어류(28%), 저서동물(42%), 부착돌말(7%), 서식·수변환경(23%)에 불과했다. 이는 분야별 전국 평균인 어류(53%), 저서동물(52%), 부착돌말(41%), 서식·주변환경(31%)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였다.

영산강은 또 토지 이용도가 높은 하천의 수생태계 건강성을 평가한 결과에서도 7곳이 나쁨 이하 등급을 받았다. 영산강의 경우 유기물질과 질소, 인 등 영양 염류에 따른 수질 오염이 다른 강보다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유기동물 구조·운반 업무

남구 18일까지 사업자 공모

광주시 남구가 유기동물의 구조부터 운반까지 총괄적인 업무를 수행할 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

11일 남구에 따르면 최근 지역내 유기동물이 증가함에 따라 동물 보호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위해 사업자 공모에 나섰다.

사업 대상자는 유기동물 구조 및 운반이 가능하면서 구조·운반에 필요한 차량 및 기자재, 임시보호 조치할 수 있는 시설을 모두 갖춘 동물보호 활동 관련 법인이나 단체, 개인 사업자다. 사업 선정자는 명절 당일을 제외하고, 연중 24시간 유기동물 구조·운반에 전념해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종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참가 신청서 접수는 오는 18일까지며, 남구는 사업계획서와 시설 및 장비 보유 증빙 자료 등을 검토해 이달 말께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김한영 기자 young@

오종렬 선생 민족통일장 노제 11일 오전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통일운동가 고(故) 오종렬 선생 민족통일장 노제가 열리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소비자원 "LED등기구 일부 제품 광효율·전자파 방출 기준 부적합"

11개 브랜드 안전성 등 평가

발광다이오드(LED)를 사용한 등기구 일부 제품이 전자파 방출이나 광(光)효율에서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파 적합성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11개 브랜드의 LED 등기구를 대상으로 광 효율과 전자파 장해, 안전성 등을 평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시험 대상은 두영조명·바텍·번개표·솔라루체·오스람·이글라이트·장수램프·코콤·필립스·한샘·히포 등 11개 제품이었다.

점등 중 전자파 장해 정도를 확인한 결과 두영조명과 히포 제품이 전자파 방출 상한선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텍과 히포 제품은 전파법에 따라 한국산업표준(KS) 인증 제품이더라도 전자파 적합성을 인증받아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 한샘 제품은 인증번호 표기를 누락했다.

소비자원은 문제가 된 사업자들은 모두 해당 제품의 개선 계획을 알려왔으며 바텍과 히포는 전자파 적합성 인증을 취득했다고 전했다.

소비전력당 밝기를 나타내는 광 효율 시험에서는 바텍과 히포 제품이 KS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제품은 KS 인증을 받았지만 이번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제품별로 광효율은 78lm/W~104lm/W 수준으로, 오스람과 장수램프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광 효율 차이를 연간 전기요금으로 환산하면 최대 5900원 차이가 났다.

빛의 주기적인 깜박임 정도를 평가하는 플리커 시험에서는 두영조명·솔라루체·오스람·이글라이트·장수램프·코콤·필립스·한샘 등 8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폐업' 상조업체 피해자 모아 집단 소송 진행 소비자연맹 홈피 접수

한국소비자연맹은 상조업체 폐업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집단 소송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폐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다수 접수된 ㈜천궁실버라이프와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가 대상이다.

이들 상조업체 가입 후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소비자연맹 홈페이지(www.cuk.or.kr)에 신청하면 집단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변론은 소비자연맹 소비자 공익소송센터의 김재희 변호사가 맡고 소송 진행을 위한 인지대와 수수료는 무료다. 소비자연맹은 20일까지 피해자를 모집한 뒤 이달말께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올 상반기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조 서비스 관련 피해를 분석한 결과 폐업과 관련한 피해가 전체의 3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폐업으로 인한 피해는 환불이나 보상 문의가 52.5%로 가장 많았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뜸 07:31 / 해짐 17:21 / 달뜸 17:29 / 달짐 07:12

찬바람 '쌩쌩'

찬공기가 유입되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춥겠다.

광 주	구름많음	2/8	보 성	구름많음	-1/7
목 포	구름많음	2/6	순 천	구름많음	1/8
여 수	구름많음	3/8	영 광	구름많음	0/6
나 주	구름많음	1/8	진 도	구름많음	2/7
완 도	구름많음	3/8	전 주	구름많음	0/6
구 례	구름많음	-1/7	군 산	구름많음	-1/6
강 진	구름많음	2/9	남 원	구름많음	-2/6
해 남	구름많음	2/8	흑산도	구름많음	6/8
장 성	구름많음	0/7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남부	앞바다	북서~북	1.0~3.0	북서~북	0.5~2.0
	먼바다(서)	북서~북	1.5~4.0	북서~북	1.0~2.0
	먼바다(동)	북서~북	1.5~4.0	북서~북	1.0~2.0
남해서부	앞바다	북서~북	0.5~1.5	북서~북	0.5~1.0
	먼바다(서)	북서~북	2.0~3.0	북서~북	1.0~2.0
	먼바다(동)	북서~북	1.5~2.5	북서~북	1.0~2.0

◇물때

	간조	만조
목포	07:06	01:41
	19:46	14:28
여수	02:38	09:13
	15:14	21:14

◇생활지수

감기	높음
뇌졸증	높음
미세먼지	좋음

◇주간 날씨

13(금)	14(토)	15(일)	16(월)	17(화)	18(수)	19(목)
-1/10	3/11	1/13	5/15	9/14	6/11	3/8

특성화고 학생 진로 탐색 기회

북구 내일 '잡담(JOB談)투어'

광주시 북구가 특성화고 학생에게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현장견학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북구는 "오는 13일 북구내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역의 우수 기업과 일자리 유관기관을 탐방하는 '청년과 기업을 잇는 잡담(JOB談)투어'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투어는 예비 청년 취업자인 특성화고 취업반 학생들에게 기업 탐방 및 취·창업 멘토링 기회를 제공해 지역내 우수기업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취업의지를 고취하고자 마련됐다.

북구는 지난달 열린 첫 투어에서 광주공업고등학교 학생 60여명과 함께 지역의 광산업 분야 우수기업인 ㈜옵토닉스와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했다.

오는 13일 진행되는 두 번째 투어는 전남여자상업고등학교 학생 40여명과 함께 연제동의 ㈜지오메디칼을 방문해 광학렌즈 분야에 대해 소개하고 인사담당자 면담과 제조과정을 살펴보는 등 현장 학습을 한다. 또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에서 취업 시 도움이 되는 '이미지메이킹'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북구는 내년에도 특성화고로 지정된 북구내 4개 학교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잡담투어를 추진해 우수한 인재들이 지역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정병호 기자 jusbh@

여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토론회

일 시 : 2019년 12월 17일(화) 오후 6시 30분
장 소 : 여수시청소년수련관
문의처 : 여수YMCA시민사업부, 여수시YMCA 두바퀴세상 (061-642-0001)

✱ 주제발표

① 국내·외 도시의 자전거 활성화 사례를 통한 여수 자전거정책 변화방향
– 정경옥 연구위원(한국교통연구원)

② 시민사회 관점에서 본 도심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제언
– 김광훈 사무국장(에코바이크 사무국장)

✱ 지정토론

① 여수시 자전거 정책의 진단과 제도 개선 방향
– 주재현 시의원 (여수시의회 해양도시건설위원회)

② 여수시 자전거 정책의 현황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

③ 여수시민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안
– 김선미 전문강사(여수YMCA 두바퀴세상, 찾아가는 자전거교실)

④ 도서관광영역에서 자전거의 역할과 개선 방향
– 강민구 청년 (전남 압해도)

주최 전라남도 주관 여수YMCA, YMCA 두바퀴세상